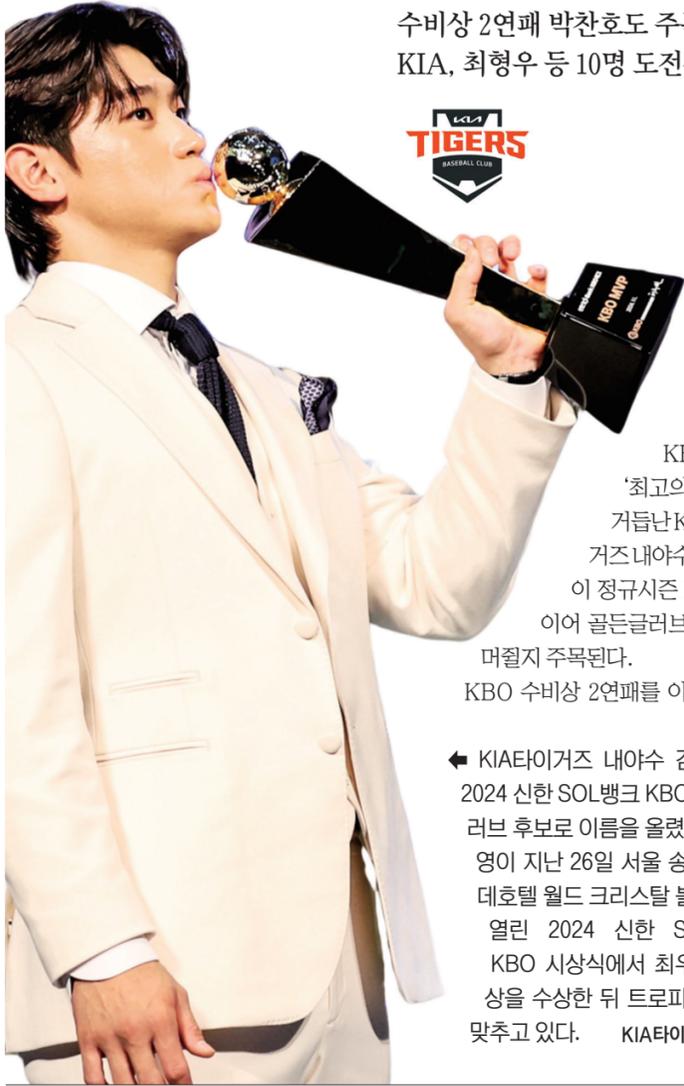


‘최고의 별’ 김도영, 황금 장갑도 거머쥘까



2024 골든글러브 후보 확정
3루수서 최정·송성문 등 경합
수비상 2연패 박찬호도 주목
KIA, 최형우 등 10명 도전장



양현중 제임스 네일 전상현 정해영 김선빈 박찬호 소크라테스 최원준 최형우

올해 KBO 리그 ‘최고의 별’로 거듭난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정규시즌 MVP에 이어 골든글러브까지 거머쥘지 주목된다. KBO 수비상 2연패를 이룬 박찬

←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김도영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뒤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호의 수상 여부 역시 관심 대상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골든글러브 후보는 총 81명으로 포지션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명 만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누린다.

후보 선정 기준은 투수의 경우 규정 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30세이브, 30홀드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 이상 수비를 소화한 선수가 후보에 오르고, 지명타자는 규정 타석의 3분의 2인 297타석 이상을 들어서야 한다.

또 정규시즌 기록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후보로 자동 등록되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해 특정 위치에서 수비 이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다 수비 이닝을 소화한 포지션에서 후보로 등록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투수 부문에서는 26명, 포수 부문에서는 7명, 1루수 부문에서는 5명, 2루수 부문에서는 6명, 3루수 부문에서는 8명, 유격수 부문에서는 7명, 외야수 부문에서는 19명,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3명이 후보에 올랐다.

올해 열두 번째 우승을 이룬 KIA는 LG와 함께 10개 구단 중 최다인 10명의 선수를 후보로 배출했다. △투수 부문 양현중·제임스 네일·전상현·정해영 △2루수 부문 김선빈 △3루수 부문 김도영 △유격수 부문 박찬호 △외야수 부문 소크라테스·브리토·최원준 △지명타자 부문 최형우가 주인공에 도전한다.

가장 수상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김도영이다. 김도영은 3루수 부문에서 문보경(LG)과 황재균, 허경민(이상 KT), 최정(SSG), 노시환(한화), 서호철(NC), 송성문(키움)과 경쟁한다.

김도영은 지난 26일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상(MVP)의 주인공이 됐다. 올 시즌 압도적인 활약을 바탕으로 미디어 투표 101표 중 95표(득표율 94.05%)를 쓸어담았다.

정규시즌에서 김도영은 141경기에 나서 타율 0.347(544타수 189안타),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 출루율 0.420, 장타율 0.647을 기록하며 공격 부문에서 모두 TOP 10에 진입하는 등 역대급 활약을 펼쳤다.

특히 KBO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를 시작으로 전반기 20홈런-20도루, 최연소·최소타석 내추릴 히트 포더 사이클(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대로 기록), 타이거즈 최초 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과 켄터플 트리플(3할-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 등 대기록 퍼레이드를 썼다.

박찬호도 수상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박찬호는 유격수 부문에서 이재현(삼성)과 오지환(LG), 박성한(SSG), 박승욱(롯데), 이도윤(한화), 김주원(NC)과 경합을 펼친다.

올 시즌 134경기에서 타율 0.307(515타수 158안타), 5홈런, 20도루, 61타점, 86득점, 출루율 0.363, 장타율 0.386을 기록한 박찬호는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주가를 높인 상황이다.

한편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은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한 미디어 관계자들의 투표로 가려진다. 투표는 27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3시까지 실시되며 결과는 다음 달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지역 인재 발굴’ 전남, 초당대 유경민 영입

4차 프로그램 통해 최종 선발

지역 축구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나선 전남드래곤즈가 초당대 축구부 유경민(사진)을 첫 계약 주인공으로 배출했다. 지역 축구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남드래곤즈가 유경민의 육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는 공격수 유경민(초당대 2)을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남드래곤즈는 전남도축구협회와 지난 6월부터 프로 선수단 합동 훈련과 체력 테스트, 연습경기 등 총 4차에 걸쳐 지역 축구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유경민은 동신대와 목포과학대, 전남과학대, 초당대 등 지역 소재 축구부와 우선 지명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



램의 주인공이 됐다. 184cm, 75kg의 체격을 갖춘 유경민은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저돌적인 공간 침투와 슈팅 능력을 갖춘 자원으로 있다.

유경민은 “꿈에 그리던 전남드래곤즈에 입단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보다는 프로 무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선수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전남드래곤즈 관계자는 “지역 축구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선수를 선발했다고 생각한다”며 “프로 무대에서 좋은 모습으로 지역 축구 발전에 귀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조선대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

내년 1월 장애인 선수 5명 채용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조선대 산학협력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장애인 체육 선수 취업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장애인 체육 선수 다섯 명에 대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6일 오후 조선대 본관 청층어룸에서 삼자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과 김용재 조선대 산학협력단장, 홍성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광

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삼자 업무 협력의 주요 분야는 △장애인 체육 선수 채용 추진 및 취업 관리 체계 협조 지원 △기관 주최 또는 주관 행사 초청 및 교류를 통한 협력 기반 조성 △기타 장애인 체육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14명을 시작으로 한전KPS 21명, 한국알프스 7명, 한국광기술원 3명 등 장애인 체육 선수 45명을 채용 연계 해왔다. 이번 삼자 업무 협약으로 채용 연계 총 50명의 누적 건수를 기록했다. 한규빈 기자

‘투혼의 에이스’ 네일, KIA와 1년 더 동행

총액 180만달러에 재계약

KIA타이거즈가 열두 번째 우승 공신인 투수 제임스 네일을 붙잡는데 성공했다. 일찌감치 재계약 총액전에 돌입한 끝에 쏟아지는 메이저리그 러브콜을 이겨낸 것으로 보인다.

KIA는 네일과 계약금 40만달러와 연봉 120만달러, 옵션 20만달러 등 총액 180만달러에 재계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 유니폼을 입은 네일은 26경기에 선발 등판해 149.1이닝을 소화하며 12승 5패의 성적을 남겼다. 특히 평균자책점 2.53으로 이 부문 타이틀 홀더가 됐다.

강력한 스윙퍼를 비롯해 다양한 구종을 바탕으로 위력적인 투구를 펼치며 KIA의 1선발로 자리매김한 네일은 8월24일 창원 NC전에서 타구에 얼굴을 맞아 턱관절 골절을 당해 정규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하지만 수술대에 오른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고, 열흘 만에 선수단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회복에 전념한 네일은 9월6일 광주 키움전에서는 승리 기원 시구를 자처하며 마운드에 깜짝 등판했다. 팬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한국시리즈 등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현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1선발로 낙점된 네일은 1차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잔물 투구를 펼쳤고, 4차전에서는 5.2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KIA타이거즈가 투수 제임스 네일과 총액 180만달러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네일이 미국 현지에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네일의 한국시리즈 최종 성적은 2경기에서 10.2이닝을 소화하며 1승과 평균자책점 2.53이었다.

네일이 맹활약을 물론이고 팀에 대한 짙은 애정도 드러낸 만큼 KIA는 일찌감치 재계약 방침을 세우고 협상에 돌입했다. 심재학 단장 역시 한국시리즈 종료 직후부터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드러냈다.

변수는 메이저리그의 러브콜이었다. 31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KBO 리그를 지배한 만큼 에릭 페디의 사례처럼 역수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복수 구단이 영입 제안에 나선 것

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선발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네일의 최종 선택은 KIA 잔류였다. 최근 구단에 KBO 리그 공인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계약 의지를 드러냈고, 사인까지 이어지며 1년 더 한국 무대에서 도전을 펼치게 됐다.

네일은 “예기치 못한 부상에도 구단의 지원과 팬들의 성원에 다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KIA와 동행할 수 있어 기쁘다. 다음 시즌에도 동료들과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